

**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1115 이재성

장애인의 반대말 = 일반인?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반대말을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인, 또는 정상인이라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장애인의 반대말을 일반인,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라는 단어이다.
장애인 != 일반인 || 장애인 != 정상인 이라는 생각은 차별하는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 오히려 독이 된다?

TED 시드니 연사로 나온 코미디언 겸 칼럼니스트인 스텔라 영은 장애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대하는 호의마저도 장애인들에게는 악의 못지않게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본인에게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 생각하고 '배풀어주는' 호의라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장애인에게 차별을 부각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

'장애우'란 어떤 뜻일까?

'장애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장애에 대해 더 관심이 있고, 장애인이라는 말을 완곡하고, 친근하게 표현하고 싶어 사용하는 것이라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장애우'라는 단어는 1인칭으로 쓸 수 없고, 단어 자체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제한하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장애우라는 말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장애인들을 바라볼때 제한적인 시각으로 다가가는 것이기에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단어이기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장애인은 모자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이 모자라고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말이다.



장애인중에서도 지적장애를 가진 이는 인구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애인 = 모자라다 라는 편견을 버려주세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장애인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신들이 호의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들이 일부 장애인들에게는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 아무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장애인들에게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큰 고통을 주게된다. 이에 나는 그것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 고쳐주고, 어떤식으로 장애인을 대해야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구성하였다.